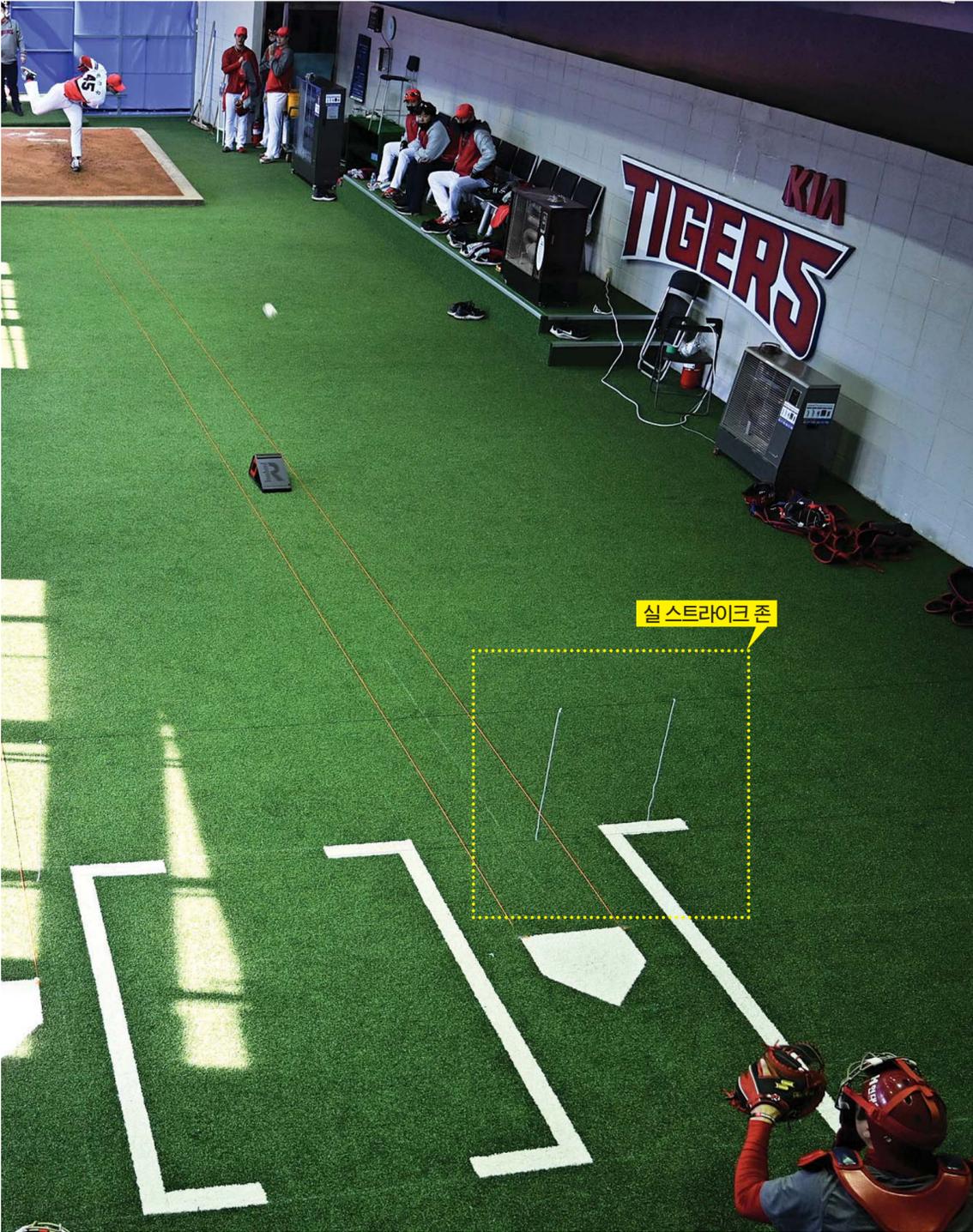


KIA '마운드 완성' 3단계 프로젝트 가동



KIA 타이거즈의 '루키' 박건우가 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스프링캠프 첫 불펜 피칭을 소화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포수 앞에 실로 스트라이크존을 설정해 그 사이로 공을 던지는데 집중하도록 주문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8분 25구·10분 40구·12분 60구 속도 조절 → 타자 상대로 라이브 피칭 → 연습게임서 마지막 점검

캠프, 체력 이어 본격 기술 훈련 맷 감독, 신인 4명 첫 피칭 관전

‘호랑이 군단’의 마운드 완성을 위한 3단계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지난 7일 캠프 후 첫 휴식일을 보낸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8일 그라운드에서 모였다.

체력훈련 위주로 캠프를 진행했던 선수들은 이날부터 필드에 나와 본격적인 기술 훈련에 들어갔다.

1루수로 변신을 준비하는 터커가 처음 1루에서 평고를 받으며 실력 점검을 했고, 야수들도 배팅 케이지에서 외야로 공을 날리며 감각기에 나섰다. 불펜에서는 신인들의 첫 피칭도 진행됐다.

이번 캠프에는 좌완 이의라·장민기, 우완 박건우·이승재 등 4명의 신인 투수가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선배들에 앞서 먼저 불펜 피칭에 돌입하며 올 시즌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윌리엄스 감독에게는 처음 신인들의 피칭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날 신인 선수들은 ‘8분, 25구’를 기준으로 잡고 첫 피칭을 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조반에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다”며 “마운드에서 처음 던지는 만큼 감각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약 조절하면서 직구만 던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실제 신인 선수들의 불펜 피칭을 지켜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감독 앞에서 처음 하는 피칭에서 선수들이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3단계’ 과정으로 마운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8분에서 10분, 25구에서 40구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갈 예정이다. 10분 피칭을 다시 반복해 그때 더 많이 던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12분 피칭이 잡혀있다. 그때는 60구 정도를 보고 있고, 변화구도 시험할 생각이다”며 “목적은 라이브 피칭에 들어가기 전에 많이 던지거나 무리하지 않고 서서히 끌어올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은 캠프에서 3단계 정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일 훈련하면서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적응하고 극복해나가는 게 처음 목표다”며 “그렇게 하다 보면 투수들도 라이브 할 때 강도가 더 세질 것이고, 그때 또 적응하는 시기를 거치게 된다. 상대팀하고 던질 때 3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들을 통해 개막전에 맞춰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불펜피칭에서 눈에 띈 것 중 하나는 공을 받는 포수들 앞에 실을 매달아 두어 만든 ‘스트라이크 존’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불펜에 실을 설치해놨다. 이 실 사이로 얼마나 공을 던질 수 있는지를 보라고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실로 설정해놓은 스트라이크 존은 올 시즌 KIA 마운드에 던져진 화두이기도 하다.

KIA에서 두 번째 캠프를 지휘하는 윌리엄스 감독은 ‘세밀함’을 언급했다. 지난 시즌의 실패를 바탕으로 더 세밀하게 선수단을 보고 이를 보완해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운드에서 우선 언급한 부분이 초구 스크라이커다.

윌리엄스 감독은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적인 목표표 가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보다 더 자세히 보는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며 “작년에 안 된 부분을 더 자세히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수들은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다. 또 불리한 볼카운트를 어떻게 유리하게 끌고 가느냐 하는 그런 운영도 중요하다”고 투수들의 초구 스트라이크를 강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 비디오 판독 2+1 2번 모두 번복시 1번 추가 기회

2021시즌 비디오 판독 결과 2번 모두 번복될 경우 1번의 판독 기회를 추가로 쓸 수 있게 된다.

KBO가 8일 2021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리그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사회는 심판 판정 논란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이닝 기준 구단당 2번씩 주어지는 비디오판독 결과가 모두 번복될 경우, 해당 구단에 1번의 판독 기회를 준다.

또 코로나19 상황, 국제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지난해처럼 더불허, 특별 서스펜디드, 월요일 경기가 편성된다.

외국인 코칭스태프 증가에 따라 덕아웃에 출입하는 통역 인원은 3명에서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4월 3·4일 열리는 정규시즌 개막 2연전 개막시간은 오후 5시에서 2시로 변경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돌아온 에이스’ 브룩스

“동료·팬에 성적으로 보답 을 20승 목표로 달리겠다”

가족 교통사고 응원 큰 위로
귀국 때 팔찌 500개 제작해
맹던과 원투펀치 기대해달라

“빛을 진 것 같았다. 좋은 모습으로 팀 승리에 도움이 되겠다.”

돌아온 브룩스가 KIA 타이거즈 선수단과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난 시즌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던 브룩스는 지난 9월 가족의 교통사고로 급히 미국으로 떠나야 했다.

KBO리그에서 차원이 다른 피칭을 보여줬던 만큼 브룩스의 빅리그 복귀가 점쳐지기도 했지만, 그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팀에 돌아오게 돼서 너무 좋고 선수들 다시 만나서 좋다. 몸 상태도 좋다”며 한국 복귀 소감을 이야기한 브룩스는 “지난해 이곳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모든 이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줬다. 결정적인 것은 지난해 가족에게 사고가 있었을 때 팬들, 선수들 모두가 잘 해주셔서 빛을 진 것 같았다. 그래서 재계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IA 선수들은 브룩스 가족의 이름과 배번을 딴 해시태그 ‘#WWBS36’을 헬멧, 모자 등에 쓰고 응원을 보냈다. 팬들도 SNS로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면서 브룩스를 감동케 했다.

재계약으로 선수단과 팬들의 마음에 응답한 브룩스는 ‘#WWBS36’가 새겨진 팔찌 500개도 제작해 들고왔다.

브룩스는 “선수들이 헬멧, 모자에 문구를 적고 경기를 했다.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선수, 팬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팔찌를 준비하게 됐다.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양현종이 선발진에서 빠지게 된 만큼 브룩스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브룩스는 지난해 이루지 못한 20승을 목표로 달리겠다고 말했다.

브룩스는 “20승이 목표다. 팀 스포츠라서 마음 먹은 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건강하게, 내가 나갈 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승리도 중요하지만, 평균자책점, 주자 출루율에 신경 쓰는 것도 선발의 역할이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또 “작년 기록이 좋았지만 상대도 나를 분석하고, 약점도 찾아냈을 것이다. 지난해와 같은 기



록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전을 위해 떠난 양현종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다.

브룩스는 “팀 입장에서 양현종이 빠지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전과 보장된 자리 등을 포기하고 도전을 위해 가기 때문에 그를 응원한다. 남은 야구 인생에서 미국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브룩스는 올 시즌 팀의 원투펀치를 구성하게 된 ‘옛 동료’ 맹던의 활약을 기대했다.

그는 “맹던과 오를랜드에서 친하게 지냈었다. 계약하기 전에 맹던이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했다. 오를랜드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윌리엄스 감독과 내가 있어서 맹던도 편하게 생각할 것이다. 좋은 활약을 기대해도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영창, 홍상삼에 이어 팀 내 투수 ‘넘버 3’ 가 된 브룩스는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올 시즌을 보낼 생각이다.

브룩스는 “지난해 이곳에 와서 나이를 존중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게 다른 부분이라서 맹던에게 알려졌다. 재미있고 다른 문화라서 알려줬는데 올해는 다행히 내 위로 형이 두 명밖에 없다(웃음). 어린 선수들이 많은데 어린 선수들과 재미있게 지내고 싶다”며 “활발한 성격은 아니지만 올해는 더 많은 이야기해주면서,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MLB 사무국, 양현종 신분조회 요청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KBO에 양현종(33)의 신분조회를 요청했다.

KBO는 8일 “지난 5일 MLB 사무국으로부터 양현종 신분조회 요청을 받아 자유계약선수(FA) 신분임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국의 진출을 노리는 한국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이나 일본프로야구 구단의 신분조회 요청을 받아야 공식 접촉이 가능하다.

신분조회가 실제 영입 제의로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양현종이 미국 진출을 추진 중인 터라 이번 신분조회 의미는 작지 않다.

미국 내 FA 시장이 정리되는 단계여서, 양현종을 향한 미국 구단의 관심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양현종은 지난달 30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KIA 타이거즈 구단 사무실에서 조계현 단장과 만나 메이저리그 진출을 도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KIA 구단도 이를 받아들여 FA 협상을 마무리했다.

KIA에 잔류하면 상당한 규모의 장기 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양현종은 빅리그 진출을 택했

다. 양현종은 ‘조건’을 많이 낮췄다.

마이너리그 거부권도 거둬들이는 상태라 MLB 구단이 한결 편안하게 양현종과 협상할 수 있다.

양현종은 KBO리그에서 147승 95패 평균자책점 3.83을 올린 베테랑 좌완 투수다.

KIA에 잔류하면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만, 양현종은 도전을 택했다.

양현종은 2019년 184%이닝을 소화하며 16승 8패 평균자책점 2.29를 올렸다. 삼진은 153개를 잡았고, 볼넷은 33개만 허용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시즌 초에 부진했고, 11승 10패 평균자책점 4.70으로 정규시즌을 마감했다. 삼진은 149개, 볼넷은 64개였다.

양현종을 꾸준히 지켜본 메이저리그 구단이라면, 7년 연속 투구 이닝 170이닝을 넘기고 꾸준한 성적을 낸 그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양현종은 “마이너리그에서도 될 수 있다”라며 미국 구단의 고민도 풀어줬다.

신분조회 과정도 끝나, 일단 문서상으로는 양현종과 MLB 구단의 공식 협상이 가능해졌다. /연합뉴스